

# 노인주거복지시설 계획방향설정을 위한 수요자 요구조사 및 분석

- 경기도 거주 노인들을 중심으로 -

## Study of a Residential Desire Survey for Planning Criteria of an Old Aged Residence

- Focused on the Old Aged in Gyeonggi Province -

은민균\*  
Eun, Min-Kyun

### Abstract

A person's residence is the primary environment which affects physical and emotional-gratification. Residential environments are very important to a person's quality of life. Because the age of society has rapidly increased, we must take a profound interest in the welfare and residences of the aged. While the government has begun to prepare for an aging society, the residential environments of the aged has not been fully considered. Because the welfare of the aged begins in the house, the term 'residence for the aged' is not limited to the physical space. Because residences for the old aged are included in various social policies such as family relations, social security, health care, safety etc, relevant policies for these residences must be prepared as rapidly as possible. This study-focused on both the importance of residences for the aged and the residential desires of the aged, and aims to propose planning criteria for the residences of the aged.

Keywords : residence of the aged, aging society, the aged, welfare of the aged

주요어 : 노인주거, 고령사회, 노인, 노인복지

## I. 서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주거는 육체적, 정서적 안정을 주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열악한 주거조건과 환경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노인주거에 대한 관심과 정책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를 지나 고령사회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표 1>.

표 1. 국가별 고령화 진행속도

구분	고령화사회(7%)	고령사회(7%)	소요년수
우리나라	2000년	2018년	18
일본	1970	1994	24
독일	1932	1972	47
미국	1942	2013	71

자료: 주택도시연구원 "고령사회 주거지원 종합대책" 2006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고령화에 따른 대책은 다양한 부문에서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지는 노인주거분야에 대한 대책마련이

\*정회원(주저자, 교신저자), 우석대학교 건축·인테리어디자인학과 조교수, 공학박사

이 논문은 2009년 우석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결과임.

시급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를 비롯하여 지자체에서 이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노년층의 주거보장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노인복지는 주택에서 시작하여 주택으로 끝난다는 말처럼 노인에게 있어 주거는 단순히 물리적 공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노인에 있어 주거란 가족생활, 사회보장, 건강, 안전등의 다양한 사회정책들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기 때문에 주거와 관련한 정책적 배려가 더욱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년층을 위한 주거의 중요성을 제고하고, 노년층의 주거욕구사항을 분석하여 노년층을 위한 노인주거복지계획을 위한 기본방향제시를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 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를 위해 먼저, 노년층을 위한 주거의 중요성을 고찰하기 위해 기초적인 사항에 대한 문헌을 조사하였다. 또한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노인주거복지시설계획 수립을 위해, 노인의 주거복지욕구조사를 수립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대상지역은 도시, 농촌, 도농복합 지역의 다양한 성격을 지닌 경기도로 하였다. 설문조사는 연구대상지인 경기도 31개 시군의 지역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내용적으로는 노인주거의 중요성과 경기도 노인주거복지 일반적 현황을 조사하였고, 경기도 거주 노인의 주거복지욕구를 설문을 통해 조사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계획 방향을 제시하였다.

## II.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일반적 고찰

### 1. 노인복지와 주거

삶을 영위하는 공간인 주택은 자연의 압력으로부터 가족들의 신체를 보호하는 물리적 공간일뿐 아니라 사회의 기본단위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이다.<sup>1)</sup> 노인주거에 대한 관심과 정책은 다음과 같은 3가지의 보다 넓은 시각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노인은 일반 사회구성원보다 신체적으로 약자이다. 경제적으로 유복하다 할찌라도 신체적 노화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 둘째, 착실히 노후를 준비한 경우를 제외하면 노인계층은 대부분 경제적 약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노인들이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셋째, 노인계층은 사회적으로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sup>2)</sup>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약자가 되는 노인들의 주거는 복지차원에서라도 시급히 제공되어야 할 중요항목 중 하나이다.

2008년 3월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실비, 유료의 개념이 없어지고,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으로 통합 개편되었고, 노인공동생활가정이 신설되었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인을 위한 공간이고, 양로시설은 노인을 입소시켜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며, 노인공동생활가정은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표 2>.

표 2. 노인을 위한 주거시설 개요

구분	관련법	주거유형	시설개요
노인을 위한 주거 시설	노인 복지법	양로시설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
		노인공동생활가정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노인복지주택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임대 주택법	공공(국민) 임대주택	노인만을 위한 주택은 아니고, 입소대상과 입소절차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대시설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름

출처: 노인복지법, 임대주택법을 참고로 정리함

시설의 기준을 보면, 먼저 양로시설의 경우 입소정원 10명 이상이며,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15.9 m<sup>2</sup> 이상의 공

간을 확보해야 한다. 노인공동생활가정은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이하로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15.9 m<sup>2</sup>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30세대 이상으로 규정되었다.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 주거복지시설 외에 실제로 고령자가 거주하고 있는 시설로는 공공임대주택이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과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건설된다. 그러나 이 공공임대주택은 노인만을 위한 주택은 아니고, 입소대상과 입소절차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대시설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고 있다. 최근 국민임대주택의 일부를 노인전용주택으로 공급하려는 계획이 추진되면서 앞으로 노인들의 주거복지시설로서 공공임대주택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2. 경기도의 노인주거복지시설 현황

#### 1) 경기도 노인인구 현황

경기도의 노인 인구는 200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경기도 총인구 11,106,211명중 871,191명으로 7.8%의 비율이다. 전국의 노인인구 평균비율인 9.9%에 비해 낮은 비율이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노인 인구 증가추이를 보면, 2010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995,087명, 2015년에 1,252,823명, 2020년에는 1,609,354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표 3>.

경기도의 인구가 증가하는 것 이상으로 노인인구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표 4>. 경기도 노인인구 증가추이를 연령별로 보면, 2020년에는 65세 이상이 1,609,554명인데 그 중 85세 이상이 155,269명(9.7%), 75세 이상 84세 이하 노인이 30.9%인 497,623명, 65세 이상 74세 이하가 59.4%인 956,462명으로 추정된다.

표 3. 경기도 노인인구 비율

년도	경기도총인구	65세이상인구수	노인인구비율
2005	10,697,215	755,514	7.0
2006	10,906,033	807,582	7.4
2007	11,106,211	871,191	7.8
2010	11,636,673	995,087	8.6
2015	12,455,913	1,252,823	10.1
2020	13,107,376	1,609,354	12.3

출처: 통계청(2007)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표 4. 경기도 노인인구 추계

연령	2010		2015		2020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65-74	626,712	63	740,085	59.1	956,462	59.4
75-84	299,687	30.1	409,595	32.7	497,623	30.9
85 이상	68,688	6.9	103,143	8.2	155,269	9.7
합계	995,087	100	1,252,823	100	1,609,354	100

출처: 통계청(2007), 시도별 장래 인구추계

경기도 노인인구 비율<표 5>은 2005년도에 이미 7%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2000년에는 7.8%에 이

1) 이인수(2007), 21세기 실버타운의 전망,대왕사, p. 45  
 2) 최항순 · 강팔문(2005.6), 고령화사회의 노인주거복지정책, 한국공공관리학보, 19(1), p. 72

르는 반면 5세 미만 영·유아는 매년 감소하여 2006년에 이어 5.5%에 그치고 있다. 노년인구를 유년인구로 나누는 노령화지수는 1997년 20.6%, 2002년 26.8%, 2007년 12월 말 기준으로 39.4%에 이르고 있다. 10년동안 노령화 지수가 18.8% 증가한 것이다 노년인구를 경제활동인구로 나누는 노년인구 부양비율은 2007년 기준으로 10.9%에 이르고 있다. 이는 10년전 7.3%에서 3.6% 증가한 것으로, 10년 전인 1997년도에는 노년인구 1명당 경제활동 인구가 13.7명이었으나, 2007년도에는 9.2명으로 줄어 든 것을 의미한다.

표 5. 경기도 노령화 지수 및 노년인구 부양비율

노령화 지수	연도	1997년	2007년	증가율
	비율		20.6%	39.4%
노년인구 부양비율	연도	1997년	2007년	증가율
	비율		7.3%	10.9%

2) 경기도 노인주거 및 주거복지시설 현황

2004년 기준으로 경기도의 공식적인 주택보급율은 97%이며, 지속적인 공급으로 양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경기도의 평균 주거면적은 2005년을 기준으로 21.8평이며, 1인당 주거면적은 7.7평이다. 65세 이상의 노인 가구는 2000년 기준으로 23만가구로 5년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하였다<표 6>.

경기도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현황<표 7>은 2008년도 보건복지가족부의 노인복지시설현황에 따르면 총시설 138개소에 입소정원 6,281명, 입소인원은 3,926명이다. 종류별로 보면 양로시설이 무료가 41개소, 실비시설이 64개소, 유료양로시설이 28개로 총 138개소 중 135개소이며, 유료노인복지주택이 5개소로 주거복지시설의 3.6%의 비율이다. 입소인원은 양로시설이 총원 3,926명중 2,513명, 유료노인복지주택에 입주한 노인은 570명이다.

표 6. 경기도 노인인구 및 가구 현황

구분	1990년	1995년	2000년
노인인구	1,619,156 명	2,168,007 명	2,668,886 명
노인가구	117,956 가구	153,339 가구	231,309 가구

출처: 경기도주택종합계획수립연구(2006),경기개발연구원

표 7. 경기도 노인주거복지시설 현황(2007년 12월 31일 기준)

구분	시설수	정원	현인원
무료양로시설	41	1,148	93
실비양로시설	64	1,095	1,013
유료양로시설	28	2,373	1,407
유료노인복지주택	5	1,665	570
계	138	6,281	3,926

출처: 보건복지가족부(2008), 노인복지시설현황

전국의 노인주거복지시설대비 경기도 노인주거복지시설은 34.6%를 차지하고 있다. 실비양로시설비율이 39.7%, 유료양로시설이 36.8%, 유료노인복지주택이 35.7%, 무료양로시설 27.8%의 순이다<표 8>.

표 8. 전국대비 경기도 노인주거복지시설 현황

구분	경기도 시설수	전국 시설수	전국대비 경기도비율
무료양로시설	41	147	27.8
실비양로시설	64	161	39.7
유료양로시설	28	76	36.8
유료노인복지주택	5	14	35.7
계	138	398	34.6

출처: 보건복지가족부(2008), 노인복지시설현황

III. 경기도 노인의 주거욕구 설문조사 및 분석

1. 설문조사의 목적 및 조사설계

노인주거복지계획의 방향설정을 위한 노인들의 주거욕구사항들을 수렴하기 위해, 대상자인 경기도의 만 50세이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 연령을 만 50세부터 한 것은, 이들도 곧 노년이 되는 세대이기에 이들의 요구도 반영하기 위함이었다. 표본의 크기는 경기도거주 노인의 성별, 50대 이상 연령별 분포를 고려하여 경기도의 31개 시군의 인구수에 비례 배분하였다. 비례 배분하여 표본의 수가 너무 적게 할당되는 지역은 최소한 30명 이상이 조사될 수 있도록 하여 확정된 표본의 크기는 1,247명 이었다. 경기도의 31개시군 중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안산시, 고양시, 남양주시, 용인시, 파주시, 평택시, 화성시 등 12개시는 인구비례로 표본을 결정하고, 나머지 19개 시군은 30명으로 표본을 할당하였다.

표 9. 설문조사 대상 표본수

성별	전체인구수	50대 이상 인구수	비율	비례 배분수	표본수
남	5,598,206	934,516	46.59	466	528
여	5,508,005	1,071,361	53.41	534	690
계	11,106,211	2,005,877	100	1,000	1,247

설문내용은 일반적 사항은 11개 항목으로 연령, 동거인, 소득수준, 현주거 유형, 주택소유여부, 건강상태 등이다. 주요 정책에 관한 질문은 9개 항목으로 노인들이 우선시 하는 사업, 알고 있는 노인복지시설 및 서비스, 운영상태, 경제상황에 맞는 맞춤형 복지시설의 필요성, 선호거주지, 별도 주택조정 필요성, 소득별 맞춤형 주택의 필요성 등이다. 노인복지시설 확충방향에 관한 질문은 7문항으로 이용하거나 이용계획중인 시설, 원하는 맞춤형 복지시설,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항, 시설의 설치주체, 재원부담, 운영주체 등이다.

고령친화주택 조성방안에 관한 설문내용은 11개 항목으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필요성, 가장 필요로 하는 시설, 경제적 부담, 노후의 주택소유의 필요성, 노후에 살고 싶은 환경, 새로운 주거단지의 위치, 노인주거단지의 주거형태, 주민구성, 경제적 지원방안, 건강할 때와 건강이 나빠졌을 때 선호 거주선호지, 현주거 개조의 필요성, 우선적으로 필요한 개조부분 등이다. 설문은 2008년 1월 15일

부터 2008년 4월 25일까지 실시하였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으로 설문하였고, 응답이 어려운 노인들의 경우 면접원의 면접식 설문으로 진행하였다.

본 설문은 SPSS 10.0 for Window를 사용하여 통계처리하였다. 통계분석 방법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위해서는 기술통계분석을, 조사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집단 간 응답의 차이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 상관관계분석을 하였다.

2. 응답자의 일반사항

본 설문에 응답한 전체응답자<표 10>는 1,247명으로 성별을 표기하지 않은 29명을 제외한 1,218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응답자의 성별을 보면, 남자가 528명으로 43.3%, 여자는 690명으로 56.7%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연령은 50세부터 91세까지로 65세에서 74세까지가 762명으로 전체의 63.7%를 차지했다. 응답자의 거주지를 경기도의 지역유형인 도시지역, 농촌지역, 도농복합지역으로 구분하면 도시지역이 62.4%인 735명, 도농복합지역이 27.3%인 320명, 농촌지역이 10.4%인 123명이다. 현재 동거하고 있는 사람은 배우자가 56.9%로 가장 높았고, 독거노인의 비율이 20.9%로 나타났다.

표 10.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

구분	항목	인원수	비율
성비	남자	528	43.3
	여자	690	56.7
연령	50-64세	297	24.8
	65-74세	762	63.7
	75세 이상	137	11.5
동거인	혼자	260	20.9
	배우자	709	56.9
	자녀(손자)	234	18.8
	친인척	6	0.5
	친구	4	0.3
	기타	33	2.6
소득수준	40만원 미만	310	25.2
	40-100만원	649	52.7
	100만원 이상	272	22.1
현거주유형	단독주택	420	35.1
	다세대, 다가구주택	163	13.6
	연립주택	63	5.3
	아파트	536	44.9
	상가 등 기타	13	1.1
주택소유	본인(배우자)소유	699	60.8
	자녀소유	192	16.7
	전세	183	15.9
	월세	59	5.2
	기타	16	1.4
건강상태	매우 건강	66	5.3
	건강	541	43.4
	보통	432	34.7
	나쁜	163	13.1
	아주 나쁜	44	3.5

응답자의 월소득은 용돈을 포함하여 응답자의 52.7%인 649명이 40만원에서 100만원이라고 응답하였고, 40만원 미만이 25.2%, 100만원 이상이 22.1%로 나타났다.

응답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유형은 아파트가 응답자 전체의 44.9%인 535명이었고, 단독주택이 35.1%,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13.6%이다. 응답자의 주택 소유여부에 대한 설문에는 모두 1,149명이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60.8%인 699명이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라고 응답하였고, 자녀소유가 16.7%로 응답하였다. 전세비율이 15.9%, 월세비율이 5.2%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건강상태를 묻는 질문은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동년배와 비교해 건강상태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3.4%인 541명이 건강한 편이라고 응답했고, 보통이라는 응답이 34.7%, 나쁜편이 13.1%, 매우 건강한 편이 5.3%, 아주 나쁜 편이 3.5%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3.4%가 건강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설문조사 결과 분석

경기도의 노인층을 대상으로 거주선호도, 노인주거 및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필요성, 주거관련 지원요구사항, 노인들을 위한 주거단지조성, 주택개조에 관한 설문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거주 선호지

노인생활시설과 자택 및 현거주지 중 어느 곳에서 사는 것이 좋은가라는 물음으로 노인들의 거주선호지를 질문하였다. 이에 전체 응답자 1,235명중 과반 이상인 57.9%의 715명이 노인생활시설을 선택하였고, 33.9%인 419명의 응답자가 자택 및 현거주지를 선택하였다<표 11>.

표 11. 거주선호지

구분	빈도(명)	비율(%)
노인생활시설	715	57.9
자택 및 현거주지	419	33.9
잘모르겠다	101	8.2
계	1,235	100

자택 및 현거주지를 선택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선택이유를 설문한 결과 친구 및 이웃과 헤어지지 싫어서라는 응답이 응답자의 31%로 가장 높았고, 외롭기 때문이 27.3%, 사생활침해가 싫어서가 16%, 가족과의 단절을 우려해서가 7% 순서로 나타났다. 그 밖에 가족과의 단절우려(7%), 시설의 불편염려(7%),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좋지 않아서(5.9%), 종사자의 불친절(2.4%), 프로그램 미비(0.5%) 등이 그 뒤를 이었다<표 12>.

연령에 따른 노인생활시설, 자택 및 현거주지 선호에 대해 알아본 결과 50세 이상부터 75세 미만까지의 응답자 모두 노인생활시설을 선호하였고, 특히 65세 이상 75세 미만의 계층은 자택 및 현거주지보다 노인생활시설을 선호하는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났다. 75세 이상의 응답자들은 노인생활시설, 자택 및 현거주지의 선호가 비슷한 것

표 12. 현거주지의 선택이유

구분	빈도	비율
외롭기 때문에	102	27.3
가족들이 방문하지 않을 것 같아서	26	7.0
한 사람만 있고 케어지지 않아서	116	31.0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좋지 않아서	22	5.9
사생활 침해가 싫어서	60	16.0
시설이 불편하여서	26	7.0
종사자가 불친절해서	9	2.4
프로그램이 좋지 않아서	2	0.5
기타	11	2.9
계	374	100.0

표 13. 연령별 거주선호지 (단위: 명, %)

구분	50세 이상-65세 미만		65세 이상-75세 미만		75세 이상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노인생활시설	131	11.1	509	43.0	59	5.0
주택 및 현거주지	123	10.6	204	17.2	59	5.0
잘모르겠다	39	3.3	41	3.5	17	1.4

$\chi^2=65.25, p<.001$

으로 나타났다<표 13>.

월소득에 따른 노인생활시설, 주택 및 현거주지 선호에 대해 알아본 결과 40만원 미만인 계층과 100만원 이상인 계층은 주택 및 현 거주지를 선호한 반면, 4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의 계층은 노인생활시설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4>.

건강에 따른 노인생활시설과 주택 및 현거주지 선호도를 보면, 건강하거나 건강상태가 양호한 계층은 노인생활시설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이 좋지 않은 계층의 노인생활시설, 주택 및 현거주지 선호수준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15>.

표 14. 소득별 거주선호지

구분	40만원 미만		40-100만원		100만원 이상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노인생활시설	110	9.0	486	39.8	113	9.3
주택 및 현거주지	156	12.8	117	9.6	138	11.3
잘모르겠다	38	3.1	43	3.5	20	1.6

$\chi^2=177.77, p<.001$

표 15. 건강에 따른 거주선호지

구분	건강한 편		보통		안 좋은 편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노인생활시설	369	29.9	256	20.7	90	7.3
주택 및 현거주지	190	15.4	138	11.2	91	7.4
잘모르겠다	46	3.7	32	2.6	23	1.9

$\chi^2=19.20, p<.05$

2) 노인주거 및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필요성  
노인들을 위한 별도의 주택조성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는 전체응답자의 80.5%인 992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6.8%만이 아니요 라고 응답했다<표 16>.

이 항목을 연령, 월소득, 건강상태에 따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연령에 따른 노인들을 위한 별도의 주택 조성의 필요성 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긍정적으로 응답한 경우는 65세 이상에서 75세 미만의 연령대에서 5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17>.

소득에 따른 노인들을 위한 별도의 주택조성 필요성 인식조사 결과 긍정적으로 응답한 경우가 4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에서 46.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18>.

건강에 따른 노인들을 위한 별도의 주택조성 필요성 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건강한 노인들이 40.4%, 보통인 노인들이 28.3%로 건강이 양호한 노인(68.7%)층에서 필요성 인식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19>.

소득계층에 따른 맞춤형 주택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1.8%인 761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8.6%인 106명만이 아니요라고 응답했다<표 20>.

노인주거복지시설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 761명중 87.4%인 666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12.6%인 96명만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표 21>.

표 16. 노인주택 조성의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예	992	80.5
아니오	84	6.8
잘 모르겠다	156	12.7
계	1,232	100.0

표 17. 연령에 따른 필요성 인식

구분	50세 이상-65세 미만		65세 이상-75세 미만		75세 이상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예	221	18.7	647	54.8	95	8.0
아니오	23	1.9	35	3.0	17	1.4
잘모르겠다	52	4.4	71	6.0	20	1.7

$\chi^2=30.97, p<.001$

표 18. 소득에 따른 필요성 인식

구분	40만원 미만		4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예	195	64.4	568	88.0	220	81.5
아니오	40	13.2	24	3.8	20	7.4
잘모르겠다	68	22.4	53	8.2	30	11.1

$\chi^2=75.49, p<.001$

표 19. 건강에 따른 필요성 인식

구분	건강한 편		보통		안 좋은 편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예	498	82.4	349	82.3	145	71.1
아니오	41	6.8	28	6.6	15	7.3
잘모르겠다	65	10.8	47	11.1	44	21.6

$\chi^2=18.16, p<.05$

표 20. 맞춤형 주택의 필요성

구분	빈도	비율
예	761	61.8
아니오	106	8.6
잘 모르겠다	365	29.6
계	1,232	100

표 21. 노인주거복지 시설의 필요성

구분	빈도	비율
필요하다	666	87.4
필요하지 않다	96	12.6
계	762	100

노인주거복지시설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주거복지시설인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기타 등으로 가장 필요한 시설을 묻는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48.1%인 130명이 노인복지주택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 양로시설이 35.2%인 95명으로 나타났고, 노인생활가정이 15.2%인 42명으로 나타났다<표 22>.

연령에 따른 가장 필요한 시설 인식을 조사한 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노인복지주택을 가장 필요한 시설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3>.

월소득에 따른 가장 필요한 시설 인식을 조사한 결과, 모든 소득수준에서 동일하게 노인복지주택이 가장 필요한 시설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4>.

표 2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선호도

구분	빈도	비율
양로시설	95	35.2
노인공동생활가정	42	15.6
노인복지주택	130	48.1
기타	3	1.1
계	270	100

표 23. 연령에 따른 가장 필요한 시설 인식

구분	50세 이상-65세 미만		65세 이상-75세 미만		75세 이상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양로시설	68	5.7	143	12.0	34	2.8
노인공동생활가정	41	3.4	69	5.8	17	1.4
노인복지주택	78	6.5	178	14.9	36	3.0
기타	2	0.2	5	0.5	8	0.6

$\chi^2=42.30, p<.001$

표 24. 월소득에 따른 가장 필요한 시설 인식

구분	40만원 미만		4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양로시설	94	7.6	108	8.8	53	4.3
노인공동생활가정	40	3.2	64	5.2	31	2.5
노인복지주택	100	8.1	131	10.6	71	5.8
기타	6	0.5	-	-	2	0.2

$\chi^2=91.95, p<.001$

건강에 따른 가장 필요한 시설 인식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건강하거나 건강상태가 양호한 경우는 노인복지주택을 가장 필요한 시설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는 양로시설을 가장 필요한 시설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5>.

필요하다고 응답한 시설에 대하여 비용을 어느정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설문에는 응답자 275명중 과반수가 넘는 57.4%인 158명이 월 20만원 이하라고 응답했고, 월 20만원에서 50만원미만이 29.1%인 80명,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이 26명인 9.5%, 월100만원이상이 4.0%인 11명으로 나타났다<표 26>.

필요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선택한 이유를 묻는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67.3%인 181명이 노후에 생활하기가 편해서라고 제일 많이 응답하였고, 앞으로 사용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20.8%, 혼자살기 편해서가 7.4%로 나타났다<표 27>.

표 25. 건강에 따른 가장 필요한 시설 인식

구분	건강한 편		보통		안 좋은편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양로시설	135	10.8	66	5.3	58	4.7
노인공동생활가정	56	4.5	51	4.1	31	2.5
노인복지주택	137	11.0	113	9.1	57	4.6
기타	1	0.1	2	0.2	5	0.4

$\chi^2=46.22, p<.001$

표 26. 노인주거복지시설 이용비용

구분	빈도	비율
20만원 이하	158	57.4
20만원 이상-50만원 미만	80	29.1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26	9.5
100만원 이상	11	4.0
계	275	100

표 27.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선택이유

구분	빈도	비율
앞으로 사용계획이 있어서	56	20.8
노후에 생활하기가 편리해서	181	67.3
혼자 살기 편해서	20	7.4
기타	12	4.5
계	269	100

3) 주거관련 지원 사항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노인에게는 다음의 2가지 질문을 하였다. 먼저, 집을 정부나 지자체에서 매입하고, 그 대신 정부나 지자체가 그에 상응하여 제공하는 무료노인주택으로 가실 생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서는 322명의 응답자 중 53.7%인 173명이 무료노인주택으로 갈 의향이 없다고 했고, 46.3%인 149명이 예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자신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지원이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 333명중 82.9%인 276명이 생활비 보조라고 응답하였고, 보

다 더 생활에 편리하게 개조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15.6%로 응답하였다<표 28>.

노후에 내집이 꼭 필요한가라는 질문에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응답자 1174명중 47.9%인 563명이었고, 필요지 않다는 응답이 50.7%인 595명이었다<표 29>.

표 28. 주택소유 노인이 원하는 지원사항

구분	빈도	비율
생활비 보조	276	82.9
보다 더 편리하게 개조를 위해	52	15.6
기타	5	1.5
계	333	100

표 29. 노후 내집의 필요성

구분	빈도	비율
예	563	47.9
아니오	595	50.7
기타	16	1.4
계	1,174	100

4) 노인들을 위한 주거단지 조성

노인들을 위한 새로운 주거단지를 조성하게 된다면 지역, 주택형태, 구성주민, 경제지원 등에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지 설문하였다. 먼저 새로운 주거단지를 조성하게 된다면 지금 사는 곳, 도외지의 시골, 도심지, 신도시 등 어떠한 지역을 좋아하는가에 대해 설문하여 주거단지조성시 선호지역을 조사하였다. 응답자 1,229명의 45.4%인 558명이 지금 사는 곳으로 제일 많이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신도시가 27.1%인 333명, 도외지의 시골이 21.5%인 264명으로 나타났다<표 30>.

다음으로 선호하는 주거형태에 관하여 설문하였다<표 31>. 새로운 주거단지를 조성할 때 원하는 주택형태에 대해 응답자 1,231명중 45.7%인 563명이 저층아파트라고

표 30. 신주거단지 조성시의 선호지역

구분	빈도	비율
지금 사는 곳에	558	45.4
도외지의 시골	264	21.5
도심지	60	4.9
신도시	333	27.1
기타	14	1.1
계	1,229	100

표 31. 주거형태 선호도

구분	빈도	비율
단독주택	365	29.7
연립 및 다가구주택	178	14.5
아파트 저층(10층 이하)	563	45.7
아파트 고층(10층 이상)	117	9.5
기타	8	0.6
계	1,231	100

응답했고, 단독주택이 29.7%인 365명, 연립 및 다가구 주택이 14.5%인 178명, 고층아파트가 9.5%인 117명으로 응답하였다. 전체적으로 저층,고층 아파트 포함해서 55.2%인 740명이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주거단지의 주민구성에 대해 설문한 경우 응답자 1,231명중 41.2%인 507명이 형편이 비슷한 노인들만 거주를 원한다는 응답하였고, 아이, 젊은층, 중년층 함께라는 응답이 41.1%인 506명, 노인들만 거주가 13.4%인 165명 등으로 나타났다<표 32>.

저소득 또는 일반노인 등 경제력(소득)이 적은 노인들에게 정부나 지자체가 경제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해 설문하였다. 주택구입을 위한 용자지원, 전세용자지원, 주택수리(개조)비용, 매월일정액의 주거비 지원, 고령자전용주택의 보급 및 입주혜택에 대해 모두 대다수 노인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표 33>.

표 32. 주민구성

구분	빈도	비율
노인들만 거주	165	13.4
형편이 비슷한 노인들만 거주	507	41.2
아이, 젊은 층, 중년층과 함께	506	41.1
동호인들끼리	40	3.2
기타	13	1.1
계	1,231	100

표 33. 노인주거를 위한 경제지원 사항

구분	필요하다		필요없다		모르겠다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주택구입을 위한 용자지원	631	61.3	143	13.9	255	24.8	1,029
전세용자지원	566	59.3	134	14.1	254	26.6	954
주택수리(개조)비용지원	926	93.2	31	3.1	37	3.7	994
매월 일정액의 주거비지원	1015	94.8	20	1.9	35	3.3	1,070
고령자전용주택의 보급 및 입주주택	968	92.6	31	3.0	46	4.4	1,045

그중 매월 일정액의 주거비 지원이 응답자의 94.8%, 주택수리(개조)비용지원이 93.2%, 고령자 전용주택의 보급 및 입주혜택이 92.6%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고령자전용주택보급, 주택개조비용지원, 일정액의 주거비 지원을 우선적으로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에 따른 주거선호도를 조사하기 위해 건강할 때와 건강이 나빠졌을 때 어떤 형태의 주거를 원하는가라는 두 종류의 설문을 하였다<표 34>.

먼저 건강할 때 어떤 형태의 주거를 원하는가라는 설문에는 응답자 1,228명중 42.8%인 525명이 현재의 집에서 그대로 산다고 응답하였고, 살기 편하도록 개조하여 산다가 25.3%인 311명으로, 현재 거주지에서 살기 원하는다는 응답이 68.1%인 836명으로 나타났다. 시골에 가서 살고 싶다는 응답이 10.6%인 130명으로 나타났고, 현

표 34. 건강상태에 따른 거주선호지

구분	건강할 경우		건강하지 않을 경우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현재의 집에서 그대로 산다	525	42.8	89	7.3
살기 편하도록 개조를 하여 산다	311	25.3	149	12.2
현재 집보다 작고 관리 편한 집	90	7.3	52	4.3
시골(정원)에 가서 살고 싶다	130	10.6	109	8.9
아파트로 가서 산다	26	2.1	21	1.7
고령자 전용 국민임대주택	35	2.9	157	12.8
노인공동생활주택	19	1.6	197	16.1
노인공동생활가정	16	1.3	163	13.3
도심지 대규모 유료시설	9	0.7	63	5.2
무료양로시설	58	4.7	-	-
전원의 대규모 유료시설	9	0.7	223	18.2
계	1,228	100	1,223	100

재 집보다는 작고 관리가 편리한 집이라는 응답이 7.3%인 90명이며,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소수가 응답하였다.

건강이 나빠졌을 때에는 어떤 형태의 주거를 원하는가라는 설문에는 건강이 좋을 때와는 다른 응답이 나왔다. 전원의 대규모 유료시설(실버타운)이 응답자의 18.2%인 223명으로 제일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노인공동생활주택이 16.1%인 197명, 노인공동생활가정이 13.3%인 163명으로 나타났고, 고령자 전용 국민임대주택이 12.8%인 157명으로 나타났고, 개조해서 산다라는 응답이 12.2%인 149명이다. 현재의 집에서 그대로 거주한다는 응답은 7.3%인 89명으로 건강할 경우와 비교하여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항목이다. 건강상태가 나빠짐에 따라 현재의 집에서 거주를 원하는 비율이 42.8%에서 7.3%로 35.5%가 감소된 것과 노인주거복지시설로의 거주희망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특기할 만하다.

살고 있는 집에 대한 개조에 관하여 필요성 및 개조할 부분에 대하여 설문하였다. 먼저 개조여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응답자 1,236명 중 80.7%인 981명이 그렇다라고 대답하였고, 아니다가 10.2%인 124명, 잘 모르겠다가 9.1%인 111명으로 나타났다<표 35>.

표 35. 주택개조 필요성

구분	빈도	비율
그렇다	981	80.7
아니다	124	10.2
잘모르겠다	111	9.1
계	1,216	100

다음으로 부엌, 목욕시설, 화장실, 단차 등 설비 같은 항목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개조항목은 무엇인가라는 설문에서는 목욕시설이 전체 응답자 1,035명중 32.8%인 339명이 응답하였고, 노인을 배려한 문턱 없애기, 경사조절, 손잡이 설치 등의 설비부분이 32.2%인 333명으로 비슷하게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화장실이 24.2%인 251명, 부엌이 10.8%인 112명이었다<표 36>.

표 36. 주택개조시 우선요구 항목

구분	빈도	비율
부엌	112	10.8
목욕시설	339	32.8
화장실	251	24.2
노인을 배려한 단차 등 설비	333	32.2
계	1,035	100

## VI.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계획방향

경기도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주선호지, 노인주거 및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필요성, 주거관련지원 요구사항, 노인주거단지조성, 주택개조 등에 대한 설문 결과를 근거로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노인주거복지시설 계획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 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거주선호지

설문조사 결과, 노인들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거주를 자기의 집보다 조금 더 선호(57.9%)하고 있다. 이는 노후에 내 집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는 설문결과(50.7%)와도 같은 맥락이다. 자택 및 현거주지를 선택한 노인들의 이유는 기존의 친구 및 이웃과의 관계와 낯선 환경에서의 외로움이 전체의 58.3%이다. 연령계층별로도 전체적으로는 노인생활시설 거주를 조금 더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별로 보면, 노인층의 52.7%인 중간소득계층은 노인생활시설 거주를 원하고 있는데 반해, 월 소득 40만원 미만의 저소득 노인계층과, 100만원 이상의 고소득 노인계층은 과반이상이 자택 및 현거주지를 원하는 비율이 오히려 높다. 이러한 결과는 과거와 대비하여 시설입소에 비해 지역사회에서 노후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선호가 증가함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지역사회에서의 정주(aging in place)의 개념과도 부합되는 동시에 의료, 복지 등의 사회적 비용 경감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소득에 따라 거주지 선호도가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는데, 이를 소득계층에 따른 맞춤형 주거가 필요하다는 설문결과와 종합하면 노인계층을 위해서는 소득에 따른 주거지의 조성 및 공급이 더욱 필요하다.

### 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필요성 및 지원사항

설문조사 결과, 노인들은 노인계층을 위한 별도의 주거조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는 주택공급 시 노인을 고려한 건축계획 및 공간구성이 필요하고, 노인들을 배려한 주거공급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자가 거주보다 노인주거복지 시설을 원하는 주된 이유는 노후 생활의 편리함을 꼽았다. 건강할 경우 현재의 집에서 그대로 살거나 개조해서 살기 원하는 노인들의 비율이 68.1%인데, 건강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재 거주가 19.5%로 나타나고 노인주거복지 시설을 선택하는 비율이 65.6%로 나타난다. 즉 건강이 나빠지거나 거동이 불편할 경우 노인주거복지시설

에서 생활하는 것이 노후에 편리할 것으로 노인들이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대한 수요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노인주거복지시설 중에서도 절반에 이르는 노인들이 노인복지주택을 가장 원했고,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을 다음으로 꼽았다. 이를 계층별로 세분화하면, 모든 연령대와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노인복지주택을 가장 선호하였다. 건강을 기준으로 할 때, 건강이 나쁘거나, 좋은 편인 노인계층에서는 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이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건강이 보통인 계층에서는 노인복지주택을 다른 시설보다 월등히 선호하고 있다. 노인들의 선호와는 달리 현재 노인복지주택은 아주 미미한 실정이다. 현재, 구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은 경기도의 주거복지시설 138개중 5개소만 운영되고 있을 뿐이다. 또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노후에 생활하기 편해서가 67.3%이고, 앞으로 사용계획이 있어서가 20.8%였다. 노인들의 시설요구와 현재 부족한 시설, 그리고 앞으로의 사용계획 등을 고려해보면, 추후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대한 공급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용시설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노인주거복지시설에서 거주하기 원하는 노인들의 과반수 이상인 57.4%가 월 20만원 이하로 희망하고 있다. 비용 면과 아울러 양적인 면에서도 공급자체가 매우 적기 때문에 노인 전용주거시설로 이사하고자 하는 노인들의 선택이 자유롭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질적인 면에서도 그 시설이 매우 열악하여 공급된 시설물로의 입주율도 저조할 뿐 아니라 수익성과 경제성을 위해 100가구 이상 대규모로 공급되어 거주자의 자율성이 떨어지게 되어 시설 운영과 같은 유사한 형태로 될 가능성이 높다.

그간에 노인의 주거문제는 정주공간으로서의 접근이 아니라 복지적 측면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양로시설 공급의 한축과 고소득층을 위한 실버산업측면에서 활성화 측면의 한축으로 접근해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양 축 사이에 있는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공급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노인들은 가능한 한 자신이 살던 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고, 이것이 사회적, 경제적인 비용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sup>3)</sup>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노인들을 자신의 집에서 계속 거주하도록 하기 위해, 주거비의 지원이 필요하며, 주택을 생활에 편리하도록 개조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기존의 주택을 정부나 지자체에 매도하고 그에 상응하여 제공되는 무료노인주택에서의 거주도 상당수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노후에 꼭 내 집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과반수의 노인들이 생각하고 있으므로, 주거비의 제공과 함께 노인주거공급계획시 참고하여 노인복지주택으로의 이주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3. 노인들을 위한 새로운 주거지 계획방향

노인들을 위한 새로운 주거지를 조성한다면, 노인들은 지금 사는 곳에서 살기를 희망하고 있다. 또한 집과 같은 환경에 거주하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을 원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노인공동생활주거의 공급이 필요하다. 노인들의 취약한 건강과 정신상태를 돌보는 기능이 반영되어야 하고, 노인이 독립적으로 살도록 지원하는 생활관리서비스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자율적으로 생활하면서도 외롭지 않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

주거형태는 저층형 아파트 또는 단독주택형을 선호하고 있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계획시 시설을 이용할 때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는 노인들의 심리를 고려하여 일반 주거형태인 아파트 또는 단독주택형의 설계가 요구된다.

건강이 악화되고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면 일반주택보다는 노인주거복지시설로 이전을 원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보다 더 악화되어 노인주거복지시설에서도 거주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이주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너싱 홈이라고 부르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은 더 건강이 악화될 경우 이사를 하는데 이때에도 노인들은 자신의 생활기반이었던 지역사회와 가까운 곳을 원하고 있다.

주민들의 구성에 대해서 노인들은 형편이 비슷한 노인들과 거주하기를 원하는 한편 다양한 세대와 살기를 희망하고 있다. 노인주거시설을 계획시 획일적인 공간 구성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또는 취미 등에서 동일한 노인들과 거주할 수 있거나, 세대가 함께 살 수 있는 대안을 제공하여 노인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4. 주택개조의 기본방향

노령 선진국들의 예를 보면, 너싱홈과 같은 노인전문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의 비율은 전체 노인의 4.5%정도에 불과하며 양로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도 이와 비슷한 수준이다.<sup>4)</sup> 대부분의 노인들은 일반주택에서 노후를 보내다가 건강이 악화되면 병원을 이용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일반주택에서 노후를 최대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인들도 주택개조의 필요성에 대해서 절대 다수가 동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의 규모를 너무 크지 않게 하고,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집 구조를 개조한다든지, 사고가 났을 때 친지나 병원에 자동연락 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생활보조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인들의 경우 목욕시설의 개조와 생활의 편리를 위해 단차를 없애고 손잡이 등의 시설의 개조를 원하고 있다. 이는 노인들의 안전과 관련되며, 안전사고 시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을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이기도 하기 때문에 주택개조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3) 장영희(2007), 고령화시대 노인주거복지정책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p. 69

4) 장영희, ibid, p. 88  
유병선(2006), 고령사회의 노인주거복지과제, 한국학술정보, p.30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개조 필요성에 대한 설문에서 80.7%가 그렇다고 응답했고, 개조를 하겠다는 설문응답을 근거해 보면 수요가 19.5-25.3%로 추정된다. 이를 경기도 50세 이상 786,269가구수 중 설문결과로 나타난 본인(배우자) 소유비를 60.8%를 적용하면 478,052가구가 대상에 해당된다. 개조를 원하는 응답이 25.3%임으로 이를 가구수에 적용하면 약 12만가구가 해당된다. 이를 10년간 총 수요로 가정하고, 수요의 10%가 실질적으로 개조를 한다고 가정한다면 연간 개조수요는 약 1,200가구로 추정된다.

이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주택개조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시군구 동사무소에 신청할 경우 자활후견기관의 집수리 사업단에 연결하여 시행하고 있다. 집수리단은 근로능력이 있고 건설관련 업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저소득층으로 구성되며, 참여 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해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노인들의 수요에 부응하기에는 공사 범위나 사업단의 규모 면에 못 미치고 있다.

노인들을 위한 주택개조가 효율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과 함께 주택개조와 관련된 상담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며 주택개조를 운영해가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담당 인력은 노인복지에 관한 이해와 열의를 가지고 주택문제에 관한 상담과 조언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할 것이다.

## V. 결 론

본 연구는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년층을 위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을 계획함에 있어, 수요자인 노인들의 욕구사항을 반영하여 노인주거복지계획 기본방향 제시를 기본목적으로 하여 진행되었다. 설문조사는 경기도의 31개 시군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대상 이루어졌고, 도출된 노인들의 주거욕구사항을 토대로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노인주거복지 시설의 계획 방향을 4개 분야로 제시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노인들은 과거에 대비하여 지역사회에서 노후생활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대한 선호도 아직까지는 과반수 이상이 원하고 있다. 다른 요인보다 소득에 따라 거주지 선호도가 차이가 나고 있어 노인계층을 위해서는 소득에 따른 주거지의 조성 및 공급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노인들은 노인계층을 위한 별도의 주거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노인을 고려한 건축계획 및 공간구성으로 노인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주거계획이 필요하다. 또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수요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노인주거복지시설 중에서도 노인복지주택이 가장 선호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기존의 주거복지시설중 노인복지주택이 가장 적은 상황인데 반해, 노인복지주택이 가장 선호되고 있어 이에 대한 공급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노인을 위한 새로운 주거단지를 조성할 경우, 기존 거주지 인근에 집과 같은 환경에 거주하면서 서비스를 받

을 수 있는 주택을 원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노인공동생활주거의 공급이 더욱 요구된다. 주거형태로는 저층형 아파트 또는 단독주택형태이고, 주민구성은 형편이 비슷한 노인들 또는 다양한 세대와 구성하는 것을 원하고 있어 대안적 공간을 제공하여 거주지의 선택 폭을 넓혀야 할 것이다.

끝으로 주택의 개조방향이다. 주택개조에 대한 노인들의 요구가 많고, 개조수요도 많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우리나라도 일반주택에서 노후를 최대한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생활보조 장치의 설치와 함께 주택을 개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노인들을 위한 주택개조가 효율적으로 시행되기 위해 정보제공이 필요하며, 담당 전문인력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수요자의 요구사항에 근거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기초적 계획방향에 대해 정리하였다. 새로운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주택, 노인공동생활가정, 양로시설 등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각 시설 계획 시 노인들의 요구를 반영함과 아울러 노인들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보다 특화된 공간구성 및 다양한 공간구성으로 노인들의 주거 선택폭을 넓혀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추후의 연구과제로 삼는다.

## 참 고 문 헌

1. 강창현(2006), 지역주거복지 전달체계의 통합,조정,네트워킹, 한국행정논집, 18(2), 561-584.
2. 경기도(2008), 경기도 노인복지시설 종합발전방향 기본계획.
3. 경기도(2007), 경기도지역사회복지계획-2007년도 시행계획.
4. 경기도(2005), 경기도보건복지 10개년발전계획(2006-2015).
5. 경기개발연구원(2006), 경기도 주택종합계획 수립 연구.
6. 대한주택공사(2006), 고령사회주거지원 종합대책.
7. 박광준(2004), 고령사회의 노인복지정책, 서울: 현학사.
8. 박준영 · 권혁삼 · 권성순(2007), 고령사회에 대응한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모델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23(4), 83-92.
9. 보건복지부(2006), 노인복지 정책방향 정책보고서.
10. 보건복지부(2005), 외국의 고령화 사회 대책 추진체계 및 노인복지 정책분석.
11. 삼성경제연구소(2002), 고령화시대 도래의 경제적 의미와 대책,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12. 유병선(2006), 고령사회의 노인주거복지과제, 한국학술정보.
13. 이현정(2007), 일본의 고령자 주거지원정책 및 고령자 주택 특성 분석,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23(12), 11-18.
14. 이인수(2003), 21세기 실버타운의 전망, 서울: 대왕사.
15. 장영희(2007), 고령화시대 노인주거복지 정책방안, 서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6.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2006), 5개년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17. 조주영 · 이상준 · 이효원(2007) 노인복지시설 구성 체계화에 대한 기초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23(1), 81-89.
18. 최성재 · 장인협(2004), 노인복지학,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 최형순 · 강팔분(2005), 고령화사회의 노인주거복지정책, 한국 공공관리학보, 19(1), 69-88.

접수일(2009. 2. 27)

수정일(2009. 5. 20)

게재확정일자(2009. 5. 26)